

이성해 위원장, "대곡소사선 개통에 따른 서울 9호선 혼잡구간 철저한 안전관리" 당부

- 대곡소사선, 김포공항역사, 서울 9호선 현장점검 및 관계자 독려 -

-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7월 3일(월) 대곡소사선 개통 현황 점검을 위해 소사역부터 고속버스터미널역까지 김포공항역을 경유하는 전철 구간을 직접 탑승하여 이동하고, 안전관리 상황을 보고받았다.
-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개통한 대곡소사선 시점인 소사역에서 탑승하여 김포공항역까지 이동한 뒤, “대곡-소사선은 북측으로는 경의선, 남측으로는 서해선과도 직결되는 노선으로, 수도권 서부지역의 출퇴근 교통난을 완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통수단이라 생각한다”면서,
 - “특히, 서울 5호선, 9호선, 공항철도, 김포골드라인 등 4개 노선이 교차하는 김포공항역에 연결되어 여의도, 강남 방면으로의 이동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말했다.
- 이 위원장은 국가철도공단, 서울메트로 등 철도운영기관으로부터 대곡소사선 운영계획, 서울 9호선 혼잡관리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후, “대곡소사선 개통으로 김포공항역사 이용객과 9호선 급행열차 혼잡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”이라면서,
 - “김포공항역은 5개 노선이 연결되고 많은 인파가 몰리는 역사인 만큼 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,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역사 내 질서유지를 위한 동선분리, 안전요원 배치 등 사고예방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”라고 당부하였다.
-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이날 점검을 마치면서 관계자들을 독려하고, “김포골드라인 외에도 서울 9호선 등 혼잡노선이 많다”면서, “혼잡관리를 위해 연말부터 증편 예정인 9호선 열차 추가 투입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
2023. 7. 3.

국토교통부 대변인